

‘신춘문예’라는 제도, 그 전개 양상과 운명

글_강진호 문학평론가·성신여대 교수

김동리는 한국의 신문학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로, ‘신춘문예 현상’을 꼽은 바 있다. 그 말처럼 문학도들에게 신춘문예는 하나의 상징이자 은유로 기능해 왔다. 습작의 꼬트머리에서 작가로 입신하는 대망의 첫 판문 중에서 신춘문예는 가장 화려하고 유혹적인 등용문이랄 수 있었고, 본격 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하는 장이기도 했다. 신춘문예에서 선발된다는 것은 개인의 문학적 자질을 공인받고 입신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인 까닭에 해마다 12월이면 많은 문학 지망생들이 신춘의 낭보를 기다리고, 신문사들 역시 좋은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분주하곤 했던 것이다.

문학적 환경이 많이 달라진 요즘에도 신춘문예를 둘러싼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최근에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위축되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크게 변화되어, 각 신문사마다 고정적으로 게재했던 연재소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서점에서도 문학서 판매대가 구석으로 내몰리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마다 신춘문예 투고 편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사회 전반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 지망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제도라는 측면, 즉 신춘문예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학제도이다. 지금 세계에서 신춘문예라는 형식의 현상(顯賞)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와 대만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춘문예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오랜 인문적 전통 속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종합적인 기능이라든지 문학의 정서적·인식적 효용성이 아직도 여전히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증거다. 더구나 식민 치하에서 문학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었다. 신채호 이래 많은 작가들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문학을 생각했고, 그래서 작품에는 현실을 천착하는 투철한 작가의식이 깃들여 있다. 신춘문예가 쉽게 폐지될 수 없는 것은 이런 오랜 전통과 제도로서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듯이 전국적으로 산재한 문예창작과나 국문학과를 비롯해서 각종 문예교실에서 전문 문인의 꿈을 키우는 무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하나같이 전문 작가를 꿈꾸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대체로 문학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을 신뢰하는 집단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터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문학적 욕구를 생각할 수 있다. 탄탄한 문장과 감수성으로 포착해 낸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잔치 분위기에 한껏 빠져드는 것은 비단 문학인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기능을 문학이 맡는 추세다. 영화나 방송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산업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역할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신춘문에 폐지론이 왕왕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문사들이 현상공모를 하고 새해 첫 신문에 작품을 게재하는 것은 이런 특성과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이유로 문학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신년이 되면 신춘문에 시 한 편이라도 훑고 지나가는 무의식적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신춘문예의 정착과 전개 과정

우리 문학사에서 신춘문예와 같은 신문사 주최의 현상(顯賞)공모가 실시된 것은 1923년이다. 동아일보사가 지령 1천호를 기념해서 여러 분야에 걸친 '현상공모'를 실시했고, 그것이 신춘문예의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그 당시의 현상공모는 현재의 신춘문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당시의 사고(社告)를 보면 우선 모집 분야가 지금과는 달랐다. 1923년 『동아일보』의 현상모집 부문은 '논문, 단편소설, 일막 각본(一幕脚本), 동화, 한시, 시조, 신시, 동요, 감상문, 지방 전통, 향토 자랑, 우리 어머니, 가정 개량, 현금 정치의 엄정 비판, 현대인물 투표모집' (『동아일보』, 5월 4일자) 등으로 되어 있다. 지금과는 다른 이런 차이는 근대적 문학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통양식과 근대양식, 인문학과 사회학이 혼재했던 1923년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춘문예'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현상(懸賞)공모'



1923년 동아일보사가 지령 1천호를 기념해서 여러 분야에 걸친 '현상공모'를 실시한 것이 신춘문예의 시발점이 되었다

였던 것이다.

당시의 현상공모는 신인 발굴보다는 오히려 사회 계몽의 기능에 더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이나 '지방 전통, 향토 자랑, 가정 개량, 현금 정치의 엄정 비판' 등의 글을 공모했다는 것은 '현상공모'의 성격이, 신문사의 역할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 계몽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조선일보』의 안내문에 한층 분명한 형태로 표면되어 있다. 『동아일보』보다 5년 뒤인 1928년에 처음 시행된 『조선일보』 신춘문에 안내문에는 '한 사람 이상을 위하여 싸워본 이야기' '흰옷 입은 동무들이 힘찬 형세로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게 할 만한 이야기' '정의의 위하여 싸우며 이기는 이야기' 등을 공모한다고 되어 있다(『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소설집』(1권), 조선일보사, 1979, 머리말). 따라서 식민치하의 신춘문예는 단순히 문인 등단의 수단이나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계몽의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작품을 일독해 본 결과 더욱 분명해졌는데, 가령 『동아일보』 1923년도 현상공모에 당선된 세 편의 논문 제목은 『현하 사회(現下社會)의 폐막』 『소작문 제 해결책』 『조선인의 경제적 활로』이고, 내용 역시 사회 계몽적인 것이었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진

입하는 과정에서 목격되는 각종 사회적 폐단과 농촌의 당면 문제 등을 담고 있어서 문학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수필이었다. 또, 1925년도 현상공모에는 모집 분야에 '가정소설'이 들어 있는데, 이 또한 당시 한국 사회가 근대로 진입하면서 전근대적인 가정생활에서 오는 불화가 자못 심각했고 그로 인해 가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었던 사실과 관계된다.

현상공모의 성격이 이러했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성격도 다분히 계몽적이었다. 『동아일보』 1923년 현상공모에 '상을(賞乙)'로 입선한, 한국 최초의 신춘문예 시라고 할 수 있는 <신(神)의 주(酒)>(박승만)는 당시 문단의 유행이었던 시대현실에 대한 비판과 퇴폐적 정조가 주조를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강한 계몽성을 보여준다.

취하지 안코는 못살 세상이어든
사람아! 무엇에 취할가 근심하려라
붉은 술이 있스나 깨임을 어찌하며
아름다운 님이 있스나 사랑이 길지 못함을 어찌하랴
아아! 사람아! 무엇에 취할가 근심하려라.
— <神의 酒>, 1연

헛된 욕망을 좇지 말고 영원한 진리에 귀의하라는 식의 내용은 시가 발표된 1923년이라는 시기를 고려하자면 이른바 신경향파 문학이 본격화되고 또, 시에서는 이상화와 박영희 등의 낭만적 비판의 시들이 번성했던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계몽적 성격을 갖고 출발한 현상공모가 오늘날의 신춘문예처럼 신인 발굴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것은 1930년 이후부터였다. 계몽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모집 분야도 문학으로 한정되면서 신춘문예는 그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는데 가령, 1930년부터 '단편소설, 동요, 동화, 희곡'으로 오늘과 같은 분야

로 확정되고, 근대문학을 빛낸 역량 있는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다. 『조선일보』를 통해서는 첫 당선자인 전춘조(1929)를 비롯해서 박영준(1932), 김유정(1935), 김정한(1936), 정비석(1937), 김영수(1939) 등이 등단했고, 『동아일보』를 통해서는 1934년에는 최인준, 조명암을 비롯한 총 12명이 등단했고, 1935년에는 김경운, 김정영을 포함한 14명, 1936년에는 김동리, 정비석을 비롯한 14명이 등단하였다. 특히 1936년에는 단편소설에 김동리(<산화>), 정비석(<줄곡제>)을 비롯해서, 시의 서정주(<벽>), 시조의 이호우(<迎春頌>) 등 현대문학을 빛낸 쟁쟁한 문인들이 등단하여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는 제도로 신춘문예가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화도 많았다. 가령, 김동리는 20세인 1934년에 처음으로 신춘문예에 투고했는데, 당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상금이였다. 그래서 그는 시, 소설, 희곡, 시조 등 모든 장르에 걸쳐 투고를 했지만, 모두 떨어지고 단지 시 <백로> 한 편만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상금은 소설의 10분의 1에 불과한 단돈 5원이었고, 이에 자존심이 크게 상한 그는 다음해에 『조선중앙일보』에 소설로 재도전한다. 이때의 당선작이 대표작의 하나인 <화랑의 후예>이다. 내친 김에 그는 이듬해 『동아일보』에 투고해 소설 <산화(山火)>가 당선되어 신춘문예 3관왕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1935년에는 김유정이 김동리와 같은 부러움을 샀는데, <소나기>와 <노다지>가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동시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널리 알려진 일화로 김정한의 경우가 있다. <사하촌>이 당선된 직후 소설을 본 스님들이 물러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 절을 비난한 소설 속의 이야기를 실제 현실로 간주하고 작가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식민치하의 신춘문예는 많은 일화를 남기면서 역량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상공모가 오늘날의 신춘문예처럼 신인 발굴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것은 1930년 이후부터였다. 계몽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모집 분야도 문학으로 한정되면서 신춘문예는 그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70년간 우리 문학 진작시키는 일역 담당

그런데 불행하게도 식민치하의 신춘문예는 1940년도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일제가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동아’와 ‘조선’이 폐간되어 더 이상 신문을 발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맞서서 민족의 정신과 언어를 지켜왔던 신춘문예가 1940년을 끝으로 일시 폐쇄되기에 이른다.

해방이 되고, 뒤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신춘문예는 일시 공백기를 맞는다. 좌우의 이념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 해방이 되었으나 신문사들은 신춘문예를 부활시키지 못했고, 전쟁으로 그 공백기는 더욱 길어졌다.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한 모두 엄청난 전화를 입었다. 통계상으로 적의 인명피해는 180만 명이었고,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33만 명, 그리고 전비는 150억 달러였다. 이런 참상을 딛고 각 신문사들이 신춘문예를 부활하여 다시 신인 발굴에 나선 것은 1954년부터였다. 『조선일보』가 1954년에 최창대의 〈별〉을 수상작으로 냈고, 1955년에 『동아일보』는 시에서 황명, 신동문을 비롯한 11명의 신인을 배출하여 다시 신춘문예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후 『조선일보』에서는 정연희(1957), 천승세(1958), 송상옥(1959), 정진규(1960) 등을 배출하였고, 『한국일보』도 신춘문예를 실시하여 오상원(1955), 정한숙(1955), 하근찬(1957) 등을 배

출하였다.

1950년대 신춘문예는 전후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건설을 위한 희망을 노래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작품을 통칭해서 소위 ‘전후문학’이라 하거나, 그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유예(猶豫)〉(오상원)이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전쟁의 잔학상을 고발한 이 작품은, 포로가 된 주인공이 적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처형당하기까지 의식 속에 명멸하는 전쟁의 무의미성, 가치를 상실한 인간 생명 등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인물의 의식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휘말려 무의미하게 희생된 인간의 생명과 그로 인해 파괴된 개인적 삶을 문제삼는다. 한편, 1955년 『동아일보』 당선 시 〈분수〉(황명)는 이외는 다른 경향의 작품이다. 작가들은 전쟁의 참상을 회상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의 비극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지금 여기 살육의 휴식시간 같은
더 없이 불안한 지역에서도
비둘기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지표가 실색(失色)한

이렇듯 황량한 뜰에서도
무궁화는
다시금 피어야 한다.
그것은 눈물이나 한숨만으로
이루어질
보람은 아니었기에...

내일로 向을 하여
뜨거운 입김과
새로운 믿음을 뿜는
우리들의
무한한 가슴이었다.
— 황명, 〈분수〉 일부

전쟁으로 인한 ‘황량한 뜰에서’ 방향을 찾고 다시 무궁화를 피워야 한다는 시구에는 전쟁의 상처를 털고 다시 일상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강렬한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화자는 그런 믿음을 ‘오늘을 넘어서 / 눈물과 한숨을 거부하는 / 의욕의 효시(嚆矢)’라고 표현한다. 이렇듯 전후의 문학은 전쟁이라는 극한적 상황에 처한 인간을 문제삼으면서, 한편으로 참상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 들어서도 전쟁과 관련된 작품이 계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전쟁〉(홍성원, 동아, 1961), 〈아직도 거기서〉(이삼현, 경향, 1962), 〈전쟁과 다람쥐〉(이동하, 서울신문, 1966) 등과 같은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면서 민족사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의 신춘문예에는 4·19 혁명의 좌절이라는 또 다른 사건과 결합되면서 한층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4·19 혁명의 좌절은 전쟁의 상처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비극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자유와 민주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다.

‘눈먼 신화의 골짜기 나무는 나무대로 / 바람은 바람대로 소스라쳐 뒹굴던 / 뿌연 전쟁의 허리춤에서 / 성냥불처럼 꺼져간 외로운 자유 / 그 이지러진 풍경 속에 / 오늘도 적멸의 눈이 내린다’ (이근배, 북위선, 한국일보, 1964). 생존의 문제가 전쟁의 가장 절박한 사안이었다면, 4·19 이후에는 ‘성냥불처럼 꺼져간 외로운 자유’를 애상하면서 향후 한국 사회의 좌표를 새롭게 제시한다.

그렇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창작의 중심은 아무래도 본격화된 산업화와 그에 따른 가치의 혼란과 불안정, 삶의 무의미성, 계층의 갈등 등의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생명연습〉(김승옥, 한국, 1962), 〈뚝대없는 葬船〉(조세희, 경향, 1965), 〈견습환자〉(최인호, 조선, 1967), 〈완구점 여인〉(오정희, 중앙, 1968) 등 산업화와 관련된 삶과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시에서도 이런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60년대 당대시의 상당수가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방황, 혼돈과 무기력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1970년대 이후까지 지속되어 문학사의 중심 영역으로 자리잡는다.

1970년대란 이른바 ‘근대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그 다양함과 역동성이 열정적으로 표출된 시기였다. 근대화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통해서 진행된다면, 1970년대는 196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산업화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던 시기이다. 농촌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이농현상이 보편화되고, 이들이 산업화의 주역으로 재편되면서 한편으로는 상승하여 중산층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부터 소외된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는 전쟁이 끝난 지 20년을 경과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고 한편으로는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단 극복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발된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 이후 최근의 신춘문예는 기존의 그것과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매체 환경이 이전과는 급격하게 변하면서 신춘문예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 그 폐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신춘문예는 이러한 제 경향을 반영하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동아일보』의 〈만화경〉(조성기, 1971), 〈사월의 칼〉(한수산, 1972), 〈아버지〉(현기영, 1975), 〈바람과 도시〉(이균영, 1977), 〈귀향일지〉(박종원, 1978), 〈혼자 웃기〉(조갑상, 1980), 〈전리품〉(이창동, 1983) 등을 들 수 있고, 『조선일보』의 경우는 〈탐〉(황석영, 1970), 〈풍속도〉(신경득, 1971), 〈한번 그렇게 보낸 가을〉(송하춘, 1972), 〈방생〉(손용상, 1973), 그리고 『중앙일보』의 〈매일 죽는 사람〉(조해일, 1970), 〈여름의 잔해〉(박범신, 1973)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최근의 신춘문예는 기존의 그것과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매체 환경이 이전과는 급격하게 변하면서 신춘문예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 그 폐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것이다. 문학은 이제 더 이상 문화의 중심 영역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대신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이른바 전자 영상매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더구나 각종 문학잡지가 우후죽순으로 창간되고 각기 신인을 발굴·추천하면서 신춘문예가 갖는 고유한 선발 기능이 약화되었다. 물론 우리 문단에서 추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50년대 중반 『현대문학』 등의 잡지가 창간된 이후부터였다. 하지만 새로운 잡지들이 대거 출현하고 신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는 누구나 맘만 먹으면 문인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아마추어 문단 시대’로 그 성격이 변한

것이다. 잡지만 해도 200종을 상회하는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졌고, 동인지까지 합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여기다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이버 신춘문예 또한 신인 양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신인들이 양산되는 까닭에 이들 신인은 이전과 같은 작가의식과 책임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생의 천직으로 문학을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신춘문예의 권위와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학 저변의 확대는 문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또 문학의 수요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응달이 있듯이, 그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문인의 질적인 저하와 문학의 주변화, 사회적 무책임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신춘문예는 70년에 걸친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문학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일역을 담당해 왔다. 제도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듯이, 신춘문예 역시 각 시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학사회학적인 역할과 기능 헤아려야

1923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70년의 역

사를 가진 신춘문예는 우리 문학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현대문학은 이 신춘문예와 더불어 양과 질에서 엄청난 비약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서 문학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심지어 문학의 죽음마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신춘문예에 많은 수의 응모작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것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기 여전히 확고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돌이켜보자면, 신춘문예의 가장 큰 역할은 문학을 대중적인 장르로 정착시켰다는 데 있다. 연초면 누구나 한 번쯤 '신춘문예'라는 말을 접하고, 또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시와 소설의 제목만이라도 훑어보게 된다. 신춘문예를 통해서 사람들은 문학에 관심을 갖고 또 심미적 감성에 눈뜨기도 한다. 가령, 문학에 조예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접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미적 체험이 될 것이다. 즉, '달의 어두운 저편'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 '부드러운 감옥' '밤에 눈뜨는 강' '울음산' '절망이라는 이름의 회망' 등의 글귀를 보면서 한 번쯤 언어의 신비로움에 빠져든다면, 그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 아닐까. 신춘문예가 그 반시대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장점들 때문이다. 사회가 급격히 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매체로 문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신춘문예를 비판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미문화(美文化) 경향이나 모범답안과도 같은 공식화된 구성법 등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문학을 향유하고 실천하는 일이고, 신춘문예는 그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해왔다는 사

실이다.

최근 들어서 신춘문예의 역기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그것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선발의 공정성 여부, 문단의 권력화, 효용가치의 상실 등의 이유가 그러한 주장의 근거들이다. 몇몇 사람들이 10년 이상 여러 신문사를 돌아다니면서 심사위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오해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실제로 모모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등단한 신인 중에는 그의 제자들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만을 선정하여 다양하고 전위적인 경향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옥에는 티가 있듯이, 그런 결점들이란 운영 주체나 문학 담당자들의 각성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잡지를 통해서 양산되는 아마추어적 문인들과는 달리 신춘문예는 보다 역량 있는 문인들을 발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한층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신춘문예는 거대한 파도에 휘청대는 쪽배의 운명과도 같다. 경제와 효용성의 신화 속에서 전근대적인 수작업에 의존하는 문학의 운명처럼 신춘문예의 앞길 또한 위태롭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인들은 신춘문예의 폐해를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이 갖는 문학사회화적인 역할과 기능을 헤아리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신춘문예가 신문에서 사라지는 날, 어쩌면 우리 문학은 몇몇 애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무수한 인터넷 동호회 중의 하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기우에 그쳐야겠지만, 